

# 95년 종로, 게이들의 초상

밤 11시. 종로의 탑골공원 뒷담길을 거닐어보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당신의 고정관념은 시험당하게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그들에게 팸플릿을 돌리는 또 다른 누군가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이 역겹기는커녕 진실의 지평을 넓혀가는 기쁨이 될지도 모른다.

최원일 (자유기고가)

## 깨달음의 기쁨이란 뜻의 게이

“소도미에게 무슨 권리.”  
“이브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너희들은 남자와 함께 늙지 말라.”

앤디는 큰 법률회사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다. 그러나 그는 해고당했다. 왜?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앤디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동성애 반대시위가 한창이다.

톰 헹크스가 열연한 영화 「필라델피아」의 한 장면이다.

시위자들은 왜 앤디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앤디는 수술한 환자일 뿐인가. 왜 앤디는 남자와 함께 늙을 수 없는가.

앤디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도 홍콩에도 대만에도 있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에 이른다는 학설도 들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맘만 먹으면’ 서울에서 동성애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종로의 낙원동 일대에만

도 게이바 30여 곳이 성업중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부터가 혼란스럽다. 모든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로서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게이(Gay)라고 부른다. 게이는 여장남자와 분명히 구분된다. 남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게이이다. 그러나 여장남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같은 남자’다. 자신의 타고난 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의학용어로는 성도착, 성전환증이라고 한다. 동성애자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과 겉보기에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여장남자는 겉보기에 완전한 여성이다.

## 그들이 원래 자화적인 것은 아니었다

동성애자들에 따르면 게이는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진다고 한다. 갈등과 번뇌 끝에 동성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각한 데서 얻은 깨달음으로서의 기쁨을 나타낸다는 것. 게이들은 소도미니 호모라는 말을 거부한다. 소도미란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한 말로서 성서적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성교방식에 대한 신의 저주가 담긴 말로 종교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호모섹슈얼(Homo Sexual)에서 유래한 호모라는 표현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다. 동성애자들을 병리집단으로 규정하고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유에서다.

서동진씨(29)는 사회학 석사과정에 있다. 영어에 능통한 그는 게이와 관련된 몇 편의 외국문헌을 번역하기도 했다. 게이인 그는 자기 전공을 성적치학으로 소개했다.

“미국사회에서 흑인은 두 가지로 불린다. 아프리카 아메리칸은 민족적 자긍심을 반영한 말이다. 그러나 감동이란 의미의 니그로는 백인의 흑인에 대한 억압과 경멸을 담은 말이다. 우리가 게이로 불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 같은 언어의 정치학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게이운동가가 갈파하는 이런 지적이 게이사회에 대중화된 것은 아니다.

밤이면 낙원동을 찾는 수많은 게이들은 스스로를 ‘보갈’ ‘이반’ ‘길녀’ 따위로 부른다. 우리나라에 동성애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 줄곧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말이 ‘보갈’이다. ‘갈보’의 어순을 바꿔놓은 이 말은 당시 수가 많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다중적인 성관계를 맺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반’ 역시 자학적인 말이다. 이성애자가 ‘일반인’이라면 자신들은 그 일반인들이 배척하는 ‘이반인’이라는 뜻이다.

밤 11시 이후 탑골공원 뒷담길에서 쓸쓸한 눈길로 지나가는 남자를 응시하는 남성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이 ‘길녀’이다. 길거리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남자라는 의미이다. 이들을 ‘길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남자를 원하는 것은 여자여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결과다.

많은 수의 게이들은 이처럼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연구 결과는 동성애의 요인으로 자기 비하를 들고 있지만 게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이성애자들에게 게이는 ‘만나보고 싶은 특별한’ 사람, 호기심의 대상이다. 정신의학자나 생물학자들에게는 연구나 실험의 대상이다. 그들은 이 점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이것이 게이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게이에 대한 가장 큰 호기심은 ‘왜 동성을 좋아하는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왜 게이가 되었나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게이가 아니었던 사람이 특정한 계기나 환경의 영향으로 ‘게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본래 게이였으나 사회를 지배하는 ‘이성애자 중심의 상식’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자각하게 된다는 것. 그들은 이 자각을 커밍아웃(Coming-out)으로 부른다.

동성애의 기원을 둘러싼 의학이나 생물학의 논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전인자나 성호르몬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연구가 있다. 유아기로부터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적 흥미가 방해되는 환경이 게이를 만든다는 후천성 이론도 있다. 그러나 정작 게이들은 이런 학술적 접근에 무관심하다. 아니 무관심하려고 애쓴다. 이성애의 원인이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듯이 동성애도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74년에 발표된 미국 정신의학회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게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 입장은 의학적 진리를 다수결에 의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게이들이 이 결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학적 관심 때문이 아니다. 동성애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임을 보수적인 의학자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든 것은 의학적 승리에 앞서 사회적 승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 당신은 왜 여자를 사랑하는가

김철진씨(가명, 26)는 군에서 갓 제대한 89학번으로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했다. 그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 왜 하필 남자를 사랑하나.

그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당신은 왜 하필 여자를 사랑하나.”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필자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이었다.

“고정관념을 깨면 의문은 너무도 쉽게 풀린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당신을 설득시킬 재간이 없다. 당신의 대답과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다.”

필자도 이성애적 고정관념의 희생자라는 말이었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에게는 이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이성애자에서 양성애자를 지나 완전한 동성애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성취향은 일곱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이성애는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와 함께 사랑의 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성애자들만의 다수적 편견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중학교 때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별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히려 동성애자와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수궁하기 힘들었다고.

- 당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 하기 싫다면 기꺼이 보내 주겠다.”

그에게는 남자친구만큼 여자친구들도 많다. ‘혹심’을

품고 대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으로 여자들이 '몰리더라'는 것이다.

“남녀 사이가 친구관계로만 남을 수 있느냐 통속적인 말에 나는 서슴없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애자 사이의 문란한 교제에 비하면 나는 한결 도덕적이고 순결하다.”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심장이 약한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대부분의 게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가족에게까지도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일이다.

“깔끔하게 생긴 두 청년이 서로에게 충실하며 디자인으로서 사회에 제 몫을 다하며 사는 모습이 지극히 세련돼 보였다. 그런 커플만 있으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동성애 자료들을 스크랩 하고 있다. 동생이 돌아오는 날 선물해주기 위해서다.

### 금반지와 혼인증명서를 갖고 싶지만

윤석민씨(30)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친 다음 일본에서 석사학위를 딴 공학도로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동경에서 만난 유학생 애인을 두고 있다. 애



게이 축제날,  
시드니 옥스퍼드  
거리를 행진하는  
게이와 레즈비언들.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유아무씨(28, 여)는 집 나간 동생 걱정에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동생은 얼마 전 가족들에게 자신이 게이임을 털어놓았다. 완고한 부모님은 동생에게서 등을 돌렸고 동생은 가출하고 말았다. 그는 결심 끝에 동성애 단체에 동성애에 관한 자료를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 동생을 이해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기까지 그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남과 다르지 않았다.

역 화장실의 구멍,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야간 공원의 풍경, 회개(?)한 동성애자의 엄청난 고백 등이 그가 매스컴을 통해 동성애를 떠올리는 그림의 전부였다.

그러나 '추적 60분'이 보여준 한 쌍의 게이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인은 지금도 일본에서 공부중이다. 그래서 윤씨는 한 달에 국제통화료로 50만원 가량을 쓴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도피성 유학생이 아니다. 무역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번역일을 맡아 적지 않은 돈을 번다. 그에게는 나이가 던져주는 고민이 있다. 결혼문제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배우자는 동경에 있는 애인이다. 그러나 애인은 남자다. 결혼의 전제가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아는 터라 맘 같아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혼보다도 더 소중한 꿈이 있다. 전공을 살려서 공학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지금 동성과 결혼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를 바라보는 눈길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아니면 동성애를 손가락질하

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룰 생각이다.”

결혼을 바라보는 동성애자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만약 자신이 이성애자였더라도 결혼은 안했을 거라고 말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애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반대로 금반지와 혼인증명서를 원하는 게이도 적지 않다. 될 수 있다면 아이도 갖고 싶어하는 게이들은 시험관 수정으로라도 아빠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 때문에 이들은 고뇌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곧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이란 살면서 생기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없는 정을 결혼 이후에 억지로 만들어낼 자신도 의욕도 없다. 그것은 아내가 될 여자에게도 무책임한 선택이다. 평생 아내에게 자신의 본질을 숨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은 결혼생활대로 따로 하고 '재미는 재미대로 따로 보려는'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고쳐보겠다고, 또는 부모의 성화에 떠밀려, 밥 해먹기 귀찮아서 결혼한 게이 가운데 많은 수가 평탄한 생활을 못한다는 말은 이들의 고뇌를 한층 두텁게 한다. 그래서 많은 게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불효자가 된다.

이후명씨는 올해 36세다.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미용사로 직업을 바꾸었다. 짙은 눈썹과 쌍꺼풀에 준수한 외모,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그가 노총각(?)이라는 사실에 강한 의문을 품을 만하다.

그는 장가 가라는 가족의 성화를 끝내 물리쳤다. 지난해 자신은 죽어도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죽는 연극을 꾸미면서까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없이 죄송할 뿐 맘을, 아니 나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 항문성교를 보는 이성애자의 야누스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자들의 성교방식에 대한 혐오다. 많은 사람들은 게이 하면 항문성교를 떠올린다. 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호기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꽤나 모순이다. 혐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 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성교방식만을 통해 우리를 재단하려는 이성애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마치 관능적인 육체적 볼륨

과 몸짓만으로 포르노 배우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어떤 방식으로 성교하고 어떻게 오르가슴을 느끼는지가 우선일 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먹고사는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표진명씨(34, 사업)의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게이들이 항문성교를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섹스 하는가’라는 질문에 점잖은 이성애자가 반응하는 똑같은 모습의 반응을 할 권리가 동성애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어느 동성애자는 성적 모욕을 감수하며 동성애자들의 성교방식을 귀띔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키스, 보디 터치(body touch), 구강성교(oral sex), 항문성교(anal sex)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방식을 사용하는 횟수나 수준이 사람이나 관계에 따라 다른 것은 이성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동성애자들만의 심벌 마크로 바라보는 이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에이즈연맹에 전화를 걸었다. 국내 에이즈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85년 이래 올해 2월까지의 통계가 있었다.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4백21명. 이 가운데 이성애 감염자가 81%로 3백39명, 동성애 감염자는 19%인 82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애라는 의식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은 그는 동성애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오약한 의학적지’라고 꼬집는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한명의 동성애자를 그 피해사례로 들었다.

“그는 심한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보건증부터 꺼내 보였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질병에 대한 공포가 범벅이 되어 정신분열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었다.”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모든 캠페인을 찬성하지만 그것이 게이를 희생양화하려는 시도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시도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의식 있는 게이 모임에서는 사우나에 안 가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게이들이 가장 자주 출입하는 곳이 사우나다. 게이 파트너를 가장 쉽게 만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우나에서의 성교는 항상 질병의 위험

이 도사리고 있다. 밀폐된 공간과 형상을 알아보기 힘든 어둠 속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성교에 열중하다 헤어지는 것이 건강한 성교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성교를 위해 습관적으로 사우나를 찾는 것은 컴컴한 휴게실에 스스로를 안주시키고 자학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 모임 '친구사이' 회장 이 립씨(30, 무역

업)의 설명이다.

이씨에 따르면 첫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도 건전한 동성애자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역 화장실에서 첫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후 습관적으로 역 화장실을 서성이게 되며 결국 건강하지 못한 게이 문화에 젖어들고 만다는 것.

게이들은 어떤 남성을 좋아할까? 이 립씨의 대답은 이성애자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 대학생 6.5%, 동성애에 개방적 시각 보여

###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시민모임 대학생 의식조사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시민모임(의장 구자준)은 94년 10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동성애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다. 표본은 서울시내 대학생 3백90명(남자 2백명, 여자 1백90명)이었으며 직접대면 접촉 방법을 사용했다.

동성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의 57.1%가 무조건 나쁘다로 응답. 부분적 찬성(32.1%), 인간의 감정은 복잡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인정(10.8%)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여학생 응답자는 부분적으로 찬성(60.5%), 절대적 인정(10%)이 무조건 나쁘다(29.5%)보다 월등히 많아 남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한결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성애를 느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62.4%가 없었다. 37.6%가 있었다로 응답했다. 동성애를 느껴본 남성 응답자는 33.5%, 여성 응답자가 42.1%로 나타났는데 동성애의 개념 규정이 약간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외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동성애를 느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불결하고 창피하므로 아무도 모르게 숨긴다(30.7%), 별 생각 없이 잊으려고 노력한다(30.7%)로 상담을 갖는다(21.8%)와 상대방에게 솔직히 얘기한다(14.7%)보다 우세한 점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관습의 폐쇄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상담을 한다면 누구와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족과 한다는 4명(1%)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상담소(18.9%) 또한 일정한 경계를 받고 있으며 친구(42.8%)와 정신과 의사(37.8%)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가족이나 상담소보다 믿고 의지할 관계, 혹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동성애 금지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관심 없다(55.8%)가 적극 찬성(29.7%)과 적극 반대(14.3%)보다 약간 우세했다. 이는 동성애 금지법이 자신과 큰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찬

성 이유는 에이즈와 변태성, 반대 이유로는 인간의 감정적인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답이 주조를 이루었다.

•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신에게 동성애를 느낀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멀리한다 ..... 남55.7% 여21.2%  
 이해하지만 멀리한다 ..... 남31.85% 여41.5%  
 이해하므로 현재처럼 지낸다 ..... 남12.5% 여37.3%

• 가족 중 동성애적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 관계를 끊는다 ..... 남41.3% 여13.4%  
 거리를 둔다 ..... 남50.0% 여48.7%  
 적극 돕는다 ..... 남 8.7% 여37.9%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게이의 생활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그 느낌은?  
 징그럽다 ..... 남22.9% 여58.0%  
 미친 짓이다 ..... 남24.8% 여 2.3%  
 아, 저런 생활도 있구나 ..... 남32.5% 여19.3%  
 이해가 안 간다 ..... 남 8.5% 여16.1%  
 별 감흥이 없다 ..... 남11.7% 여 4.3%

• 만약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한다 ..... 남56.1% 여16.3%  
 그렇지 않지만 의심한다 ..... 남21.6% 여42.1%  
 관심 없다 ..... 남22.3% 여41.6%

• 양성애자와 동성애자 중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보나?  
 동성애 ..... 남50.0% 여17.7%  
 양성애 ..... 남28.5% 여29.4%  
 모르겠다 ..... 남21.5% 여52.9%

수려한 용모에 큰 키, 섹스 취향을 먼저 보는 식성(?) 중심의 게이기가 있다.

'친구사이'에서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정재홍씨(28)는 안타까운 구석과 실망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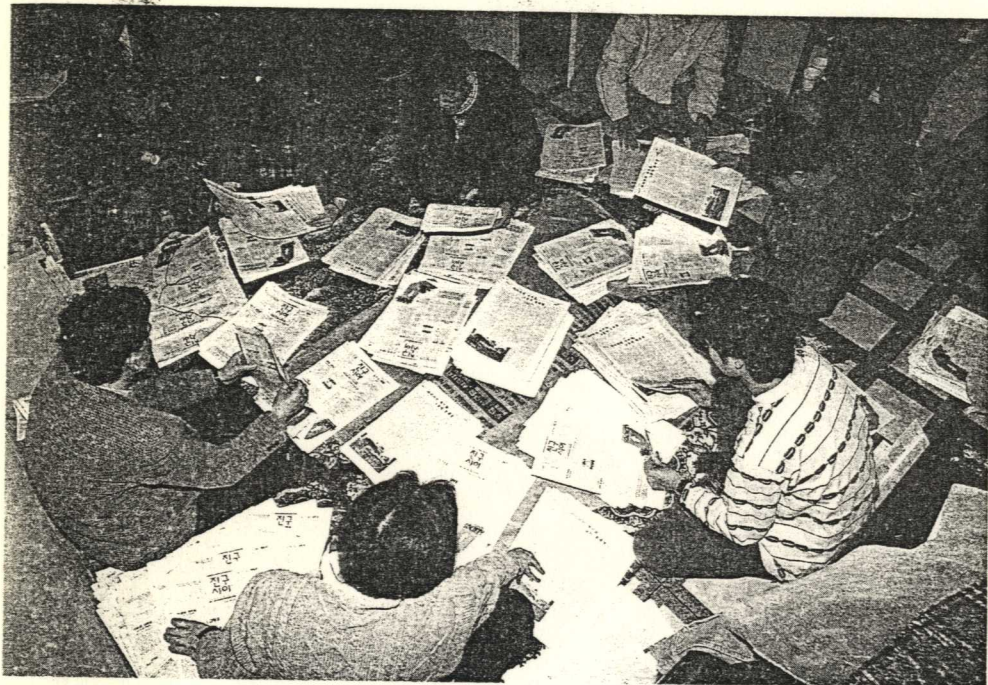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짝사랑으로 끝내야 하는 사연을 들을 때와 애인을 구하고 싶다는 가장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줄 수 없을 때가 미안하다."

"전화받는 분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폰

않았다. 비슷한 경향의 친구를 만나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나 서씨는 대학진학 후 수년 동안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다시피 바쁘게 살았다. 80년대는 그로 하여금 게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게 할 만큼 가파른 역사였다. 그는 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에 몰입해 있었다.

'날라리까지도 운동가로 만들려는' 의욕이 게이로서의 색다른(?) 삶을 보류하게 했던 셈이다. 그는 졸업 후 노



동성연애자 모임 '친구사이' 실무자들이 소식지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섹스 하실래요"라는 말이 수화기를 타고 들려올 때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

그러나 사람 됨됨이와 성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직한 사랑을 하는 게이도 많다. 식성 중심의 사랑이 인스턴트 사랑으로 끝나는 것까지 이성애자 사이의 사랑과 차이가 없는 것은 동성애자가 결코 특별한 '환자'들이 아님을 새삼스레 강조하게 되는 고마운 질문이라고 이 림씨는 말했다.

### 한국 게이의 행복지수

대부분의 게이에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혼돈과 고뇌의 연속이다. 서동진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기가 찾아왔다.

"사춘기 소년으로서 알아야 할 성교육에 무지한 편은 아니었지만 동성애라는 말은 나의 어휘목록 속에 있지도

동운동에 진출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선택에는 소련 사회주의 멸망과 진보진영의 후퇴 등 90년대적 변화도 한몫으로 작용했음을 그는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동료와 교수까지도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쿠바 사회주의의 '게이 격리정책'을 놓고 그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쿠바는 지난해 여름 게이 수용소를 만들려다 서구의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쿠바관 아우슈비츠'라는 맹비난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 사회주의와 게이 해방세상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나.

"올바른 사회주의라면 게이 해방도 포함되는 사회주의다.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하면 난 당연히 게이 해방사회를 택한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 문제는 사회의 진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성문제가 어떻게 정치가 될 수 있느냐는 조롱을 종종

받곤 한다. 그러나 다양하게 사회의 지배·종속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성이다. 여성 해방 문제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는 강력한 유권자 집단화되어 있는 미국의 게이 운동을 예로 든다. 클린턴은 대통령 취임 직후 동성애자 군입대 허용법을 발표했다. 매년 6월 1백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미국의 민주당은 대표를 파견하여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작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에이즈 세계대회에 내빈으로 참

석한 일본 왕세자의 옆자리에는 일본 동성애 단체의 대표들이 비슷한 자격으로 나란히 앉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 옆자리라도 앉을 수 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할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요.”

그는 이곳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다 공짜로 된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년 동안 철저히 게이 인권운동을 벌여온 미국 게이들의 투쟁의 성

## 내가 지켜본 어느 동성연애자에게

**필** 라델피아, 결혼 피로연, 패왕벌회, 크라이 게임, 오코계, 굿 프렌드, 알렉산더, 갈잎, 리바이벌, 아직도, 백야, 동경, 머무르고 싶은 곳, 초동화, 친구사이, 사포, 끼리끼리, 스파르타쿠스, ILGA…….

이 단어들은 모두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이다. 가만히 그들 업소명과 모임 이름을 되뇌어다보면 묘한 공통점들이 있다. 첫번째는 어둠다는 느낌이고, 두번째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고, 세번째는 우정에 대한 아쉬움과 갈등이란 점이다. 나는 아직도 동성애를 모른다. 아니 동성애자에 대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 물론 현재까지도 동성을 '사랑'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왜냐하면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과의 섹스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 동성애라는 생소한 말과 의미를 납득하게 만든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였다. 그는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나의 고향 후배다. 지금은 에이즈와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지만, 그는 동성애자로서는 국내 최초로 자전적 수기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를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그를 이해한다. 후배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얼굴도 따뜻한 정도 뜨거운 의리도 아는 진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때 그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자 애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욕도, 사랑에 대한 열정도 일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삶이고 열정이고 성이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이성애적 사랑을 하는 내가 동성애적 사랑을 하는 그를 이성애로 설득하려는 것이 틀린 걸까 하고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뉘우침이 동성애를 옹호하진 않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총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것들도 인간인가요? 동물이나 진배없죠! 차마 눈뜨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 그런 시각들이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그들의 수기처럼 마냥 '외롭고 슬퍼져' 자살도 감행해보고,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자꾸만 눌러

앉아버리고 싶어진다.

그리고 또 우정에 대한 아쉬움과 갈등의 문제도 여전히 많은 동성애자들의 의문이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많은 날들을 혼돈 속에 살게 할 것이다. Coming-out! (당당한 동성연애자가 되자!) 그것은 동성애 성향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함이다. 그러나 우정도 힘든데 사랑이라니, 게다가 여태껏 잘 만나오던 동성친구에 대한 사랑이라니.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은 갈등한다.

우리는 스스로 냉정히 따져볼 일이 있다. 이성을 사랑하면서도 동성애자처럼 제대로 사랑하는지. 아니 그 사랑하는 방법이나 제대로 아는지, 아니 그조차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도들을 진짜 알고 있는지를.

나는 놀랐다. 그들은 사랑의 주기가 '우리'보다는 짧다. 아니 그보다는 길게 사랑할 방법이나 사회적 여건이 안돼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이나 3년 동안에 그들은 마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사랑을 해댄다. 마치 우리가 30년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들은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러나 감히 '친구' 된 도리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자부심을 가지려는 당부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수많은 싸움이 예고된 폭풍전야 같은 떨리는 자부심이다. 냉철히, 진짜 냉철히 내가 그런 고정들과 이성애적 'жат대'를 가진 그들과 맞서 싸우고도, 또 내 가족, 내 친구와 정정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뚜렷한 육체적·정신적 자존심과 동성애적 성향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오랜 시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아마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존경을 배우고 사랑의 의미를 깨우친다. 아니 길들여지고 짜여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더욱 은밀한 사랑법을 배운다. 하지만 그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커다란 편차가 있다. 그것도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오명과 우정을 사랑으로 만드는 과분한 이해 속에서……. **■**  
구자준(에이즈 퇴치를 위한 한국시민모임 의장)

단체의 대표  
다.  
다면 이 통계  
자리라도 앉  
은 일이다.  
이러는 사실

1년 동안  
투쟁의 성

도 여자가  
처럼  
! (당당한  
죽과 친구  
가. 그러나  
나오던 등  
은 동성애

을 사  
그 사랑하  
면 사

는 짧다.  
건이 안돼  
나 3년 등  
해낸다. 나  
마음처럼

수 있는  
부심은 결  
된 폭력  
내기 그  
서 싸우고  
수 있는  
이 자  
것이다.

를 깨  
다 자  
간 그들과  
있다. 그  
을 사

과조. 우리는 그런 세단에 세계화 붐을 타고 무임승차하  
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게이는 과거 미국에서처럼 게이라는 이유로 불  
평등과 탄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게이는 행  
복하다. 그러나 한국의 게이는 불행하다. 그들이 드러나  
는 탄압을 받지 않는 것이 게이를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게이에 대한 이렇  
다 저렇다 할 정부 입장 자체가 없다. 오직 정신병자 취급  
하는 사회적 통념만이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근거로 경제적 권리  
를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성을 둘러싼 삶의 문제가 저항  
으로 되는 사회는 아니다. 인정도 탄압도 아닌 무관심이  
한국적 게이 운동의 불행”이라고 게이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다보니 많은 동성애자들은 정치에 무관심거나 도  
파심리가 강하다.

취재중 만난 동성애자들에게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  
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생똥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  
장으로서의 인권을 제기할 만한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 게이와 이성애자는 영원한 우방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의 대상과 접점이 없는 상태, 여  
기서 게이들이 느끼는 것은 사면초가의 체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밤에는 사우나와 극장에 출입해서 게이로  
살고 낮에는 남에게 이성애자로 비쳐지기 위해 애써야 하  
는 생활을 반복한다. 사회적 냉대와 비정상적 취급이 바  
뀌지 않으면 게이들은 그만큼 음지로 들어가게 된다. 자  
학과 질병에 대한 공포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게이들에게  
는 이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게이라는 이유  
로 자기 삶이 고통과 불행으로 얼룩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이들에게는 참세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성애제도의 피해자는  
게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강하고 정력적이어야 한다는 강제적 남성성  
은 얼마나 많은 남성들에게 의무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서동진씨는 게이의 가장 친밀한 벗이자 원군은 짓눌린  
이성애자들과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짓눌린 이성애자들이 자신들을 바라보  
는 시각은 아직 탐탁지 않다는 점을 게이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게이 모임들은 자신들이 먼저 이성애자

들에게 다가서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게이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스스로 느끼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 모임 친구사이는 올해를 '게이 자긍심의  
해'(Gay Pride Year)로 정했다. 질병·문화 부문에서  
자신들에게 터무니없이 씌워졌다고 여겨지는 혐의들 앞  
에 뚝뚝해지기 위한 노력에도 열심이다.

그리고 이성애자들에게는 연민으로서의 온정이 아닌  
진정한 '가슴 열기'를 바라고 있다. 한 동성애자가 인터  
뷰에 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이 인터뷰의 대상이 안되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보기 위해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은 유명하다. 지금까지의 게이에 대한 무관심은  
게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광활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  
래서 최근 1년 사이에 남성 동성애자 모임은 많은 매체에  
오르내렸다. 신문, 방송에서 여성지에 이르기까지 그들  
은 어느새 유명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얼굴 없는  
유명인이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얼굴 없는 유명인이 아니다.  
자기 얼굴을 찾은 무명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  
다.

법정에 선 앤디의 변호사는 오늘도 모든 이성애자들에  
게 말하고 있다.

“여기는 필라델피아,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땅. 독립선  
언문에는 모든 이성애자들은 평등하다고 쓰여 있지 않습  
니다. 오직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을 뿐입  
니다.” ■

### 알림

(주) 월간 말에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값진 단행본 원고와 출판기획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원고나 기획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팩스나 우편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요약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우편번호 121-240)

서울 마포구 연남동 372-4 연세맨션 라동 1층

(주) 월간 말 출판담당 기자

전송 : 322-0019, 전화 : 322-0011